

私立大學의 財政 자립과 寄附金 입학

宋 梓
(延世大 經營學科)

기부금 입학이 短期的으로 私立大學의 財政 自立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행 과정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教育的인 면에서도 入學을 돈으로 交換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는 많은 社會的인 不作用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私立大學의 財政的인 自立은 政府가 私學財團을 육성하고 최소한도의 補助金を 지급하며 완전히 自律化된 入學制度를 도입하여 기부금 입학의 장점이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머리말

요즈음에 와서 갑자기 '기부금 입학'이라는 말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것인가? 우리의 모든 教育 施設이 相對的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특히 大學은 質的인 教育을 할 수 있는 準備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學生의 숫자만은 世界的인 水準으로 팽창되어 있다. 그래도 國立大學은 좀 나은 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大學, 특히 私立大學을 質的으로 向上시키는 方法은 무엇인가? 어떠한 방법을 말하더라도 궁극적인 문제는 그러한 方法을 집행할 수 있는 資金이 문제가 된다. 이 資金 問題의 해결 方法으로 기부금 입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본다. 특히 요즈음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동결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 문제는 더

욱 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私立大學에 들어오는 收入 財源은 등록금, 財團轉入金, 기부금 및 國家 등의 補助金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私立學校의 주된 수입 源泉은 등록금이었다. 1987년도의 文敎部 統計에 의하면 私立大學은 79.1%의 수입을 등록금에 의지하였다. 財團은 대부분이 不動產, 특히 土地를 가지고 학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토지가 창출할 수 있는 資金이란 不規則的이고 일시적일 수 있으며, 安全性 있는 收入源으로 만들려면 再投資를 하여 임대업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林野나 가지고 있는 財團은 資金 創出의 方法이 없다. 政府의 補助金도 아직까지는 거액의 金額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의무교육에 관련된 教育費나 중·고등학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大學

에, 특히 私立大學에까지 줄 財源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財源이 기부금이다. 이제는 稅法이 改正되었지만 오랫동안 企業이 私立大學에 기부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制約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이 제약이 풀어졌으므로 私立大學에 많은 기부금이 흘러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오늘의 사회 형편으로 보아 그렇게 될 것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금을 계속 올려야 하는데 학생들이 반대하므로 중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기부금 입학인 것같다. 오늘날 大學의 入學에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자는 것이다. 체육 특기자와 해외 근무 외교관과 企業人들의 子女가 國家에 기여한 父母들의 공로나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에서 體育 선수가 입상을 하여 나라의 이름을 빛내어 특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 資金으로 學校에 기여하는 사람에게도 입학 특혜를 주자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같기도 하다. 그러나 기부금 입학이라는 것이 응급약으로 한번 혹은 두번 사용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長期的으로는 우리 私立大學의 財政 문제를 根本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2. 寄附金 入學이란 무엇인가?

기부금 입학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학을 기부금이라는 돈과 交換하였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흔히 들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기부금 입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같다.

1) 捕缺生

보결생이란 1950년대와 '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된 제도이었다. 결원이 발생한 자리를 기부금이라는 명목의 자금을 받고 입학을 시켜 준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같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에도 있는 것처럼 전해지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입학 전형을 마치고 合格者를 發

表할 때에 보결생의 대상자를 Waiting List 라는 것으로 통지를 한다. 이 대기자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이 學校에 기부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入學이 용이할 것이라는 말들을 흔히 한다. 우리와 같이 定員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美國에서는 이러한 制度를 통하여 신축성 있게 기부금 입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2) 定員外 入學

私立大學 事務處長協議會가 내놓은 案이기도 한데 定員外로 일정한 학생 수를 기부금을 받고 入學을 시키자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기부금 입학이라고 하면 흔히 이러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定員은 성적으로 뽑고 기부금을 낼 수 없는 學生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定員이 固定的인 制度에서 활용할 때에는 큰 부작용이 없을 것같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로 入學이 되는 學生들이 체육 특기자나 외교관 자녀들과 같이 떳떳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런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50년대나 '60년대에도 이와 유사한 기부금 입학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3) 定員內 入學

이 제도는 기부금 입학생을 처음부터 定員에 포함시켜 發表하므로 사실상 기부금 입학생이 구별되지 않는 제도이다. 우리와 같이 定員이 고정적인 제도에서는 부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국가의 면허 시험을 보는 學科, 즉 의학과, 약학과 등과 같은 특정 학과에만 적용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능력이 없으면 안 되며, 入學이 되었어도 卒業 때에 資格試驗을 보므로 質的인 統制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美國과 같이 정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보결생 제도와 이러한 定員內 入學制度를 동시에 병행하는 기부금 입학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寄附金 入學의 長點

기부금 입학 제도가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이 제

도는 나름대로의 長點을 가지고 운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絶對的인 評價를 할 수도 있지만 相對的인 評價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실현된다는 가정이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기부금 입학은 相對的인 長點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實現性에 있다. 실현성의 문제는 뒤에 논하기로 하고 몇 가지의 장점을 생각하여 보자.

1) 私立大學의 財源 確保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실현만 된다면 私立大의 財政的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美國의 경우 私立大의 收入 중 10~20%를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私立大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반 기부금이 없다면 특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아야 하는데 특정한 방법 중의 하나가 기부금 입학인 것이다.

特定한 方法이란 私學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든지, 아니면 건물에 이름을 붙여 준다든지 혹은 석좌 교수 제도를 만들어 이름을 붙여 준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들보다 우리의 現實에서는 기부금 입학이 財源 確保를 위해 더 용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教育熱이나 학연을 증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기부금 입학을 통하여 私學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부금 입학으로 수입되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장학금으로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美國이나 日本에서는 施設과 研究 增進에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일상 經常費는 등록금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활용하는 기부금 입학이 실현만 된다면 私學의 財政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機會의 均等

教育을 한다는 것이 꼭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人格的으로 完成되고 社會에 공헌하며 이웃과 平和롭게 살 수 있는 一般 市民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적순의 입학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적이 좋은 사람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섞여 사는 社會이다. 그렇다면 學校도 사회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섞어 가지고 教育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入學의 基準이 성적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적 좋으면 入學도 되고 장학금도 받고 하는데 성적은 조금 좋지 않더라도 기부금을 내겠다는 사람에게는 入學의 機會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衡平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작자가 가지고 있는 특기에 따라 入學이 결정될 때 공평한 것이지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3) 富의 再分配

우리는 기부금 입학 이야기를 하면 늘 富의 재분배가 되니까 좋다고 한다. 여유 있는 사람은 學校에 등록금을 더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 어려운 사람은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效果에 있어서 美國 大學들이 學生의 必要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差等支給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기부금 입학의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入學으로 들어 온 돈이 많은 사람이 教育을 잘 받을 수 있는 效果를 주게 되므로 富의 再分配가 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教育을 質的으로 잘 받은 사람이 졸업 후에 生産的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므로 社會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經濟理論에서 이야기하는 限界效用의 法則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있다. 넉넉한 사람의 1,억은 아마 넉넉하지 못한 사람의 백만 원과 같은 效用效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부금 입학을 통하여 富의 再分配가 되므로 經濟的으로 곤란한 사람도 學校를 다닐 수 있게 하니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寄附金 入學의 問題點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기부금 입학이 실시되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왜 이러한 제도를 말

리 도입하지 못하는가? 왜 세계의 어떠한 학교도 公式적으로 우리는 기부금을 받고 入學을 시킨다는 말을 하지 않는가? 설명 기부금 입학 하더라도 왜 特定한 學科만으로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은가? 이러한 것들은 바로 기부금 입학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短點도 많다는 것을 반증함이 분명하다. 그러면 어떠한 단점이 있는 것인가?

첫째로 어떠한 方法으로 기부금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로 教育的인 측면에서 入學을 파인돈과 연결시켜 富한 사람은 入學이 가능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機會가 주어지지 않아 社會的인 위화감을 조장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1) 寄附金 入學의 方法과 金額

기부금 입학의 方法에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다. 또한 한 方法을 선택하면 다른 方法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법도 없다. 세 가지의 方法을 다 함께 적용할 수도 있다.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첫번째로 봉착하는 문제이다. 범위를 너무 확대하면 그에 따르는 不作用도 크기 마련이다. 너무 좁히면 말만 기부금 입학을 한다고 하면서 별로 實效를 거두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方法이 결정되고 나면 얼마의 기부금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개적으로 하기 위하여 입찰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大學이 入學을 入札로 결정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金額을 너무 많이 하여도 너무 적게 하여도 문제는 따르게 마련인데 적정한 기부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方法과 金額 이외에도 기부금 입학을 어떻게 公示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리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체육 특기자나 외교관 자녀의 입학도 公示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모양이다.

기부금 입학에 관련된 사무를 누가 담당하느냐도 문제인 것 같다. 각 大學에 맡기느냐 아니면 어떤 公的인 機關이 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

약 公的인 機關이 한다면 모든 大學의 기부금 입학을 전부 대행하여 주느냐 아니면 特定大學만을 대행하여 주느냐 하는 것이다. 지원자가 大學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公的인 機關이 大學을 지원자에게 배정하여 줄 것인가?

기부금 입학에 관련된 방법, 기부 금액, 공시 방법, 사무 관장 부서의 지정 등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결정하지 않고는 不作用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寄附金의 活用 問題

기부금 입학의 방법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부금 입학에서 조달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活用하느냐 하는 것은 學校 構成員의 利害關係에 관련되어 있다.

學生들은 기부 입학금을 바로 장학금으로 생각하는 데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기부금은 教育 施設의 확충이나 研究 中心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가지고 항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원래 기부금이란 기부를 하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는 權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기부금 입학에서도 기부를 하는 學父學母가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는가?

누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 先進國에서는 기부금의 활용에 대해 기부를 하는 사람의 의사를 가능하면 존중하여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인 추세를 보면 大學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美國의 州立大學 등록금이 증가되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부금 입학에서 조달되는 기부금은 經常的인 아닌 方向으로 사용하기 위한 논란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學生들이 학교의 모든 일에 參與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부금 입학에서 조달되는 財源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것으로 학교가 소란스러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잘못하면 기부금 입학을 이유로 등록금 동결이라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3) 違和感 造成

1960 년대에 우리가 소위 보결 입학생 문제로 겪었던 社會的인 問題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入學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할 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나라와 같이 教育熱이 높은 곳에서 入學이 단순히 돈으로만 결정된다고 하면 이는 社會的인 違和감을 조성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부금을 받아서 私學이 財政的인 自立을 하는 것이 기부금 입학의 目的이라면 入學이라는 것을 빼고 기부금을 받는 방법을 長期的으로 研究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入學을 기부금을 받는 商品으로 단드는 것은 教育的으로 문제가 있다. 教育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가 돈을 基準하여 결정된다면 그 教育은 문제가 있다. 教育은 돈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즉 성품이나 성적 등이 다 함께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入學이 돈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때 社會가 大學을 생각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國家的인 면에서 教育의 質이 떨어지게 되고 계층간의 違和감만을 조성하게 된다. 기부금 입학에 의하여 아무리 많은 돈이 調達된다고 하더라도 社會的인 뒷받침이 없이는 實效를 거둘 수 없다고 본다. 선진국들이 기부금 입학이라는 말을 公式的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도 다양화된 입학 제도에 의하여 기부금 입학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活用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5. 私立大學의 財政 自立

기부금 입학이 私立大學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너무나 近視眼的인 생각이다. 기부금 입학이 응급약으로 한번 혹은 두번은 이용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長期的으로는 우리 私立大學의 문제를 根本的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그 많은 私立大學 중에 몇 개의 大學은 기부금 입학이 될 수 있을런지 몰

라도 그외의 많은 大學에 기부금을 내고 學生들이 入學하려고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앞으로 學力間의 賃金 격차가 줄고 技能人을 우대하는 경향이 企業에서 일어나면 大學의 메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學校의 인식만 나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로 기부금 입학이라는 구차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長期的인 觀點에서 私立大學의 財政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구태여 왜 이러한 非教育的인 方法을 사용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方法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財團의 育成을 통한 財團轉入金의 增加이다. 우리 政府는 지금까지 輸出企業에 많은 政策的인 배려를 해주며 産業을 육성하여 왔다. 똑같은 배려를 私學財團을 育成하는 데 기울이면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私學도 企業과 같이 튼튼한 財團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로 私學에 기부를 많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稅制面에서의 혜택이 과감하게 주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外國에서처럼 각 企業의 社員들이 자기 출신 학교에 기부를 하면 同一한 金額 이상을 같이 부담하는 제도를 권장하면 좋겠다.

셋째로 政府가 최소한도의 장학금 혹은 학비 감면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겠다.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던 때에 시작된 소위 학비 감면액을 최소한도로 전액 보조하여야 한다. 졸업 정원 제도도 없어졌는데 私學이 학비 감면 금액의 10%를 등록금 수입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로 볼 때 이 정도의 보조는 政府가 私學에 할 수 있다고 본다.

네째로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國家의 必要에 의하여 相對的으로 많은 學生을 양성하는 理工系에 대해 政府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도로 실험·실습비나 실험 기자재 등은 정부가 부담하여 大學의 財政 自立에 힘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私立大學의 등록금은 완전히 自律化되어 教育의 質과 學科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大學과 學科가 같은 등록금

을 낸다는 것은 의무교육이 아닌 大學에서 수
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등록금은 학
교의 경상비, 즉 變動費는 충당할 수 있는 정도
로 책정되어야 한다.

6. 맺는 말

기부금 입학이 단기적으로 私立大學의 財政 自
立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시
행 과정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教育的인 면에서도 入學을 돈으로 交換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곳
에서는 많은 社會的인 副作用을 야기시킬 우려
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私立大學 財政의 自
立 문제를 長期的인 측면에서 보고 해결해 나가
야 한다.

그러면 長期的인 方法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그 해답이 쉬울런지 모르지만 政府가 私學財團
을 育成하고 私學에 補助金을 과감하게 支給하
는 것이다. 최소한 졸업정원제로 인하여 발생한
10% 정도의 학비 감면액이나 理工系의 실험·
실습비 등은 政府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入學을
自律化하는 것이다. 大入 시험에서 우리나라처럼
성적순으로만 선발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學校가 완전히 入學에 대한 自律權을 가지

고 성적, 지역, 社會 活動, 성품, 財政 能力,
부모들의 학교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통틀
어 평가를 하면, 어떤 父母는 자기 자식이 성적
이 나쁘더라도 학교에 財政的인 기여를 많이 하
여 入學이 가능해질 수 있다.

敎育이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꼭
學生을 성적순으로만 뽑으라는 法은 없다. 너
나 성급하게 기부금 입학으로 私立大學의 財政
難을 해소하려다가는 敎育에 더 큰 오점을 남기
게 될 것 같다. 우리는 入學을 自律化하여 大學
에 기부금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지 그것
을 돈과 交換하는 入學制度를 만들어서는 곤란
하다고 본다. 결과가 같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사회에 주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한
다. 入學으로 인해 기부금이 大學에 들어오는 것
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入學이 商品이
되어서도 안 된다. 入學은 기부금이 大學에 더
잘 들어오게 하는 데 공헌하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고 본다.

우리는 自律化된 入學制度를 가지게 되면 혼
히 말하는 기부금 입학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선진국의 入學制度를 참고로 하여 빠
리 우리의 것을 만들어 나가자. 이제는 더 이상
政府가 입학 제도를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政治·經濟의 民主化와 더불어 敎育도 과감하게
각 大學의 自由競争에 맡겨야 한다. *